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c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단식과 금욕을 통해 우리 교우들도 보다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복된 사순 시기를 맞도록 합시다.

◆ 복사단 소식

- 한규상 요셉, 김태준 유스티노 형제님이 복사단 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첫영성체를 받은 자녀들이 복사로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우리말로 주모경, 심계명, 사도신경, 묵주기도, 삼중기도를 암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불가능할 경우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 복사단장으로 장운성 가브리엘 형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 사순 기간 2차 헌금

오늘 미사 중 파견 성가 전에 빈첸시오회 기금마련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오늘 미사 후 (2시 15분) 주일학교 교실에서 자모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시는 부모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 성가대에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영주 마리아 단장 (614-315-859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소: 이인표 바오로 형제님 댁
5882 Haddler Ct.
Dublin, OH 43016
(전화) 799-0743

◆ 주일 학교 봉사자

- 3월 9일: 박희영 신영숙
- 3월 16일: 김용선 손보영

◆ 친교 준비 봉사자

- 오늘은 친교가 없습니다.
- 3월 16일: 이진학

◆ 3월 친교후 정리 봉사는 김효임 구역이 맡습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사순 제5주일 March 9, 2008



<라자로의 부활>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오베르 쉬르 와즈, 프랑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6.00
교 무 금	\$800.00
감 사 헌 금	\$100.00

- 교 무 금: 이영숙 신현태 김한식 김도형 김영숙
- 감사헌금: 신현태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에제키엘 37,12c-14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도다.



제 2 독서 로마서 8,8-11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 11,1-45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		계
김제준	단 명	1,180단	10명	
이호영	120단 1명	7,510단	65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285단 2명	5,365단	56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05단 3명	222/04 -3/2/08 (210주)		

☞ 총누계: 194,980단 12,643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3월 9일	3월 16일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최규선 김원영 황석두 구역	한석철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7 ♫ 봉헌: 332
♫ 성체: 160 151 ♫ 파견: 120

절망의 끝자락에서

안병철 베드로 신부, 서울대교구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요한 11,39). 분노가 담긴 절규에 가까운 마르타의 외마디 탄식이, 되돌려놓을 수 없는 죽음의 차가운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 어떤 인간적인 친분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다니! 죽음 앞에서 큰소리칠 자 누구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몬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은 라자로 소생 이야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한 마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데서 찾아집니다. 물론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마리아, 마르타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요한 11,32)라고 말할 정도로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실망과 좌절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구심과 주저함의 참담한 순간을 겪어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명의 주관자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되살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몸소 사시게 될 그분의 부활을 예표(豫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르타와 마리아가 흘려야 했던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두 자매의 가슴을 짓누르던 깊은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을 밝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로가 다시 얻은 생명은 일시적으로 지속되게 될 한시적인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불멸하는 생명의 힘'(히브 7,16)은 세례의 은총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지금 그 생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매순간이 의구심과 의혹으로 점철되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 불안의 끝자락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탄식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의구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의 지평선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희망을 받쳐 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 퇴색치 않는 희망을 안겨 주어 절망의 끝자락이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